

미술문화Life

표지작가 - 안창홍

작가탐구 - 강지만/ 양태숙/ 김광수

미술가족탐방 - 임만혁 · 김혜연 부부

미술인사이드 - 한국 최초의 부부화가 윤보 김기창 · 우향 박래현

장인의 예술혼 - 금속공예가 한상대

2012. 06

| 표지작가 |



추(醜)의 미학을 통해 세상에 폭로되는 부조리한
사회상(社會相)과 치유를 위한 저항

안 창 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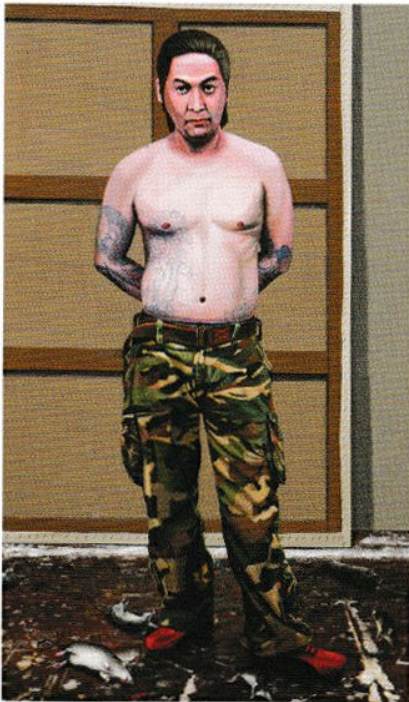


베드 카우치 5 (Bed Couch 5) · Acrylic on canvas · 210x300cm · 2008



베드 카우치(Bed Couch) · Acrylic on canvas · 130×194cm · 2010

안창홍 작가는 1970년대 독일 표현주의적인 경향의 작업을 시작으로,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흑백의 무채색이 화면의 주조를 이루는 <가족사진> 시리즈, 1980년대 중반 폭력의 잔혹성을 그린 <위험한 놀이>와 <전쟁> 시리즈, 1980년대 후반 <얼굴> 시리즈, 1990년대 <여인> 시리즈와 다양한 인물화 작업, 2000년대 <봄날은 간다> 시리즈, 2004년 부산비엔날레에 선보였던 <49인의 명상> 시리즈, 2005년 <사이보그의 눈물> 시리즈, 2006년 <사이보그>와 <부서진 얼굴> 시리즈를 비롯하여 최근작인 <베드 카우치> 시리즈 작업까지, 그의 화폭에서 그려내고 있는 다양한 주제와 소재와 작품 내용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적합하게 적용된 다양한 표현 양식과 더불어 천문학적인 작업량은 실로 경이롭다.



문신한 남자(Tattoo Man)
Acrylic on canvas · 194x114cm ·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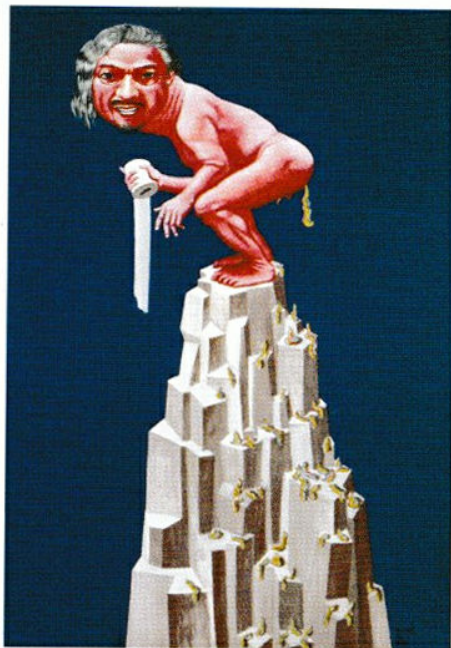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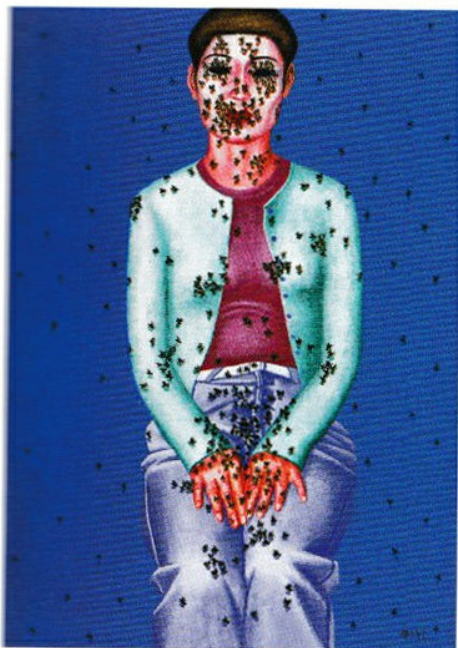
부자연스러운 대형 흑백누드화에 숨겨진 독창적인 '안창홍 식'의 메타포 읽어내기

안창홍 작가의 최근작인 <베드 카우치> 시리즈 작품을 처음 대했을 때 우리는 우선 작품의 스케일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동시에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받는다. 화폭 전체를 주도하고 있는 흑백의 무채색이 가져다주는 음울함과 엄숙함 그리고 장대하게 묘사된 인체로 인해 관능미가 제거된 그러나 매혹적인 누드모델로부터 풍겨져 나오는 압도적인 장엄미는 종교적인 경건함마저 느끼게 한다. 그의 <베드 카우치> 시리즈 작품에 등장하는 모델들은 전문 누드모델이 아닌 그가 정성을 들여 직접 섭외한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의 작업실이 있는 양평 마을의 농부 노인(베드 카우치5)을 비롯하여 젊은 여인, 아저씨, 아줌마, 작가의 지인 등 그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베드 카우치> 시리즈 작품의 대부분의 모델들은 전라(全裸)의 상태로, 바닥은 온통 물감 자국으로 얼룩져 있고, 회화용 나이프, 물감, 붓, 찌그러진 맥주 캔 등으로 여기저기 너절하게 어지럽혀진 누드화에 적합한 실내 장소라고 생각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화가의 작업실 중앙에 생뚱맞게 놓여진 짧고 좁은 딱딱한 재질감이 느껴지는 베드 카우치에 누군

자의 요청에 의해 억지로 몸을 끼워 맞춘 듯한 누가 봐도 불편하게 느껴지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편 모델들의 정면(관람객)을 향한 노력하는 듯한 시선은 누드화의 관행을 깨는 것으로서 보여지는 자에서 보는 자로 상황이 전도되면서 누드모델의 몸을 훑쳐보려는 관람객의 관음증적인 욕망마저도 박탈한다. 그가 관람객과 동등한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모델에게 의도적으로 불편한 자세를 요청한 것임을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다. 누드화의 전통을 모두 파괴하면서까지 그는 왜 〈베드 카우치〉시리즈 작품을 제작하게 된 의도는 무엇인지, 모델을 불편하게 하는 주요 원인인 ‘베드 카우치’의 정체는 무엇인지 우리는 작품 안에서 열쇠를 찾아야 한다. 그가 섭외한 모델들은 특징인이 아닌 우리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 이므로 모델을 불편하게 만드는 베드 카우치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는 등식이 자연스럽게 성립되고, 〈베드 카우치〉시리즈 작품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그만의 독특한 ‘베드 카우치’ 조형 형상이 내포하고 있는 것 즉, 그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그가 줄곧 저항해온 부패한 정치권력, 부조리한 현실, 사회적 폭력, 기득권 계층의 횡포 등 정치와 권력과 사회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의 이러한 내장된 정치적인 메타포는 〈문신한 남자〉작품에서는 작업실 바닥 여기저기에 널리어 있는 쥐의 사체를 통해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베드 카우치, 2010, 130x194cm〉작품에서도 살아있는 여인의 몸 위에 앉아있는 극사실적으로 묘사된 파리를 통해서 권력에 대한 욕망과 부패한 권력을 상징하고 있다. 부패한 권력의 상징인 파리는 더 나아가 개인의 일상과 죽음의 실루엣이 느껴지는 모든 곳으로 옮겨간다. 그의 최근 화풍에는 예전 작품에서 보여주었던 키치적인 성향의 에로티시즘, 감상주의, 퇴폐주의, 직설적이고 난폭한 공격성 등 그의 작품을 구별되게 했던 요인들이 많이 희



2010년의 사랑(Love 2010), 2010 · Acrylic on canvas · 194x9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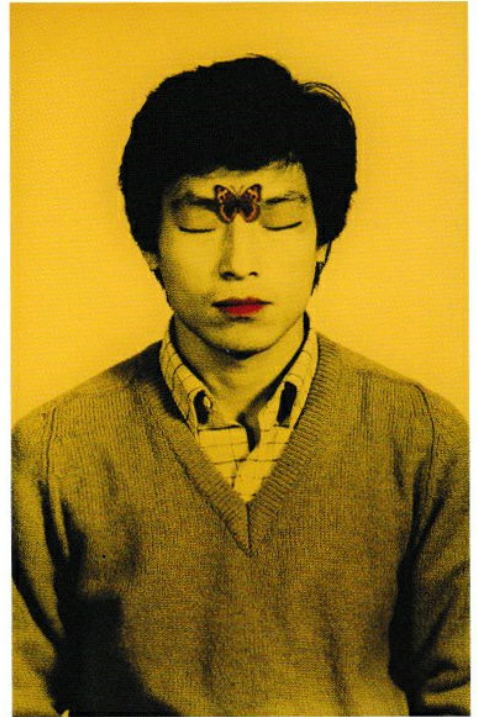
左. 여인(Woman), 1999
Acrylic on canvas
91x65cm

右. 화가의 똥(Excrement of Artist)
Acrylic on canvas
194x97cm · 1999



가족사진(Family Portrait) · Oil on canvas · 130.3×162.2cm · 198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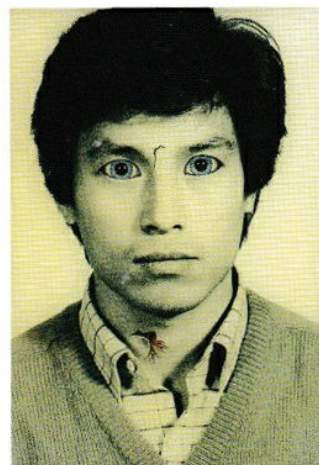
49인의 명상(Forty Nine People's Meditation) · Mixed media · 109×75cm · 2004 ▶



미해져가고는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체(停體)를 거부하는 성향의 그가 선택한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조형적인 표현 양식의 변화일 뿐, 현재에도 그의 본질을 상징하는 반골 기질(反骨 氣質)은 여전히 그의 작업 안에서 현재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회화와 사진과의 연관성: 과거의 개인의 역사를 현시대의 사회의 역사로 확장시키기

그는 올해 3월에, 인사동에 위치한 갤러리룩스에서, “안창홍의 쿠리에서 고비까지”라는 타이틀로 인도의 중서부 자이살메르 옆 사막에 인접한 쿠리마을과 몽골의 고비사막을 촬영한 여행 사진전을 가졌다. 그의 회화 작품들 중에는 사진과 관련된 작품도 많고, 사진을 직접 이용한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이번 사진 전시회가 그리 낯설지 않은 않게 느껴진다. 1979년 그는 자전적인 성향의 흑백의 <가족사진> 시리즈 작업을 시작하면서 사진과의 첫 인연을 맺게 된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카메라의 견고하면서도 세련된 몸체와 까맣게 윤이 나는 탐미적인 카메라의 눈에 매혹되어 어린 시절부터 카메라 자체를 좋아했었고 동시에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다고 하니 그의 사진과의 만남은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셈이다. 그의 <가족사진, 1980> 작품의 모든 가족구성원들의 얼굴은 정상적인 사람의 얼굴대신 고통과 공포에 절규하듯 벌린 입과 뺨 뚫린 눈만으로 시각적으로 단순화시켜 표현되어 있다. 혼(魂)이 나간 것 같은 얼굴에서 울려져 나오는 극단적인 공포와 슬픔과 절망의 치절한 내적인 울림의 합창은 화면 전



사이보그(Cyborg)
Photograph · Acrylic, epoxy · 70×50cm
2006



사이보그의 눈물(Cyborg's Tear)
Mixed media on paper, 98×69cm
2005



기념사진-봄날은 간다(Commemorative Photograph-Spring Day Goes) · Mixed media on photograph panel · 207×400cm · 2006

체를 뒤덮고 있는 어두운 회색 톤이 주는 중후함으로 인해 이 가족에게 덮쳤던 비극의 무게를 더욱 더 고조시키고 있다. 이 <가족사진> 시리즈 작업은 그가 1979년도에 시작하여 1982년까지 집중적으로 그리기 시작한 작품으로 군부독재의 부패된 권력이 개인과 사회의 기본 구성체인 가족을 향해 행사한 비인간적인 폭력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그는 과거의 시간 속에 갇혀있는 개인적인 삶의 역사를 현재의 시간으로 불러내어 정치적으로 '사회화' 시킴으로써 우리의 둔감해진 의식의 기억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한편 2004년 부산비엔날레 현대미술전에 출품하였던 <49인의 명상> 시리즈 작품은 그의 사진과 관련된 작업 중에서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해준 작품이다. 그가 우연한 기회에 폐업한 한 사진관에서 구한 증명사진용 필름 수백 장이 작업의 동기가 된다. 그는 확대 인화된 인물들의 눈을 지우고 마치 명상하듯이 눈을 감아버림으로써 증명사진의 특징을 박탈하고 그들을 모두 익명화시킨다. 또한 인물들의 입술을 불게 칠함으로써 빛바랜 사진과 대비적인 효과를 이룸으로 이들이 삶과 죽음의 중간지대에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화면 곳곳에 흩어진 나비는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는 매개자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들이 속해 있는 중간 지대는 존재와 부재, 삶과 죽음, 현재와 과거 등으로 확대해석 될 수 있다. 아울러 49인에 대해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는 관객은 작품을 감상하면서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49인의 명상> 시리즈 작품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49인의 명상> 시리즈 작품의 인물들은 <사이보그> 시리즈 작품에 마치 복제 인간의 형상으로 재등장하고 있는데 과학



부서진 얼굴(Broken Face) · Acrylic on canvas · 310×210cm · 2008



기념촬영-박제된 반달곰(Snap Shot - Stuffed Thibetanus)
Acrylic on Paper · 130.3×97cm · 1992

의 발달로 인간마저 복제할 수 있는 기계가 지배하고 있는 현대 문명의 이기를 비판하고 있다. 이외에도 그의 사진과 관련된 작품으로는 〈기념사진-봄날은 간다〉, 〈봄날은 간다〉, 〈기념사진〉, 〈부서진 얼굴〉, 〈얼굴〉 시리즈 등의 작품이 있다. 그는 사진 위에 회화적인 작업을 추가하기도 하고, 커터 칼로 상처를 내기도 하며, 사진 콜라주 작업 등 작품 내용에 의해 다양한 조형 기법으로 표현된 그의 작품들은 독창적인 현대적인 미감이 풍부하게 느껴진다. 그의 사진과 관련된 작품들은 과거의 시간 속에 박제된 개인의 역사를 현시대로 불러내어 사회의 역사로 확장시킴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 많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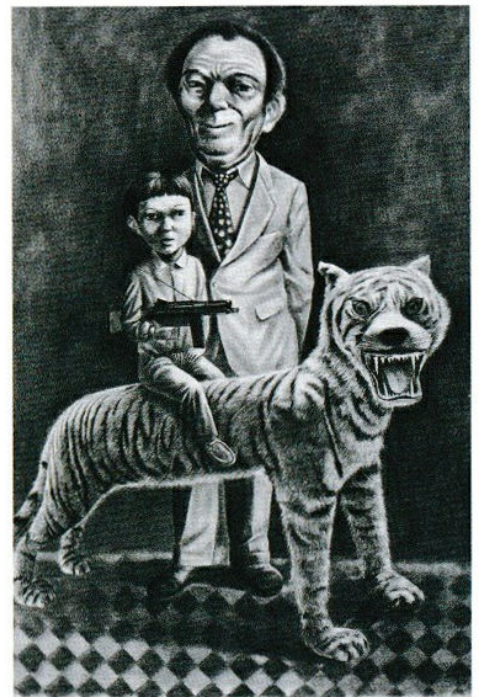
그의 마음의 눈은 오래도록 사회적인 폭력, 인간의 위선, 인간과 문명, 부패한 권력, 상처받은 사람들의 삶 등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현상에 대해 항상 예민하게 열려있었다. 직설적인 그의 표현법에 의해 외관상 작품이 거칠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핵심은 소외되고 상처받은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이며 그의 작품은 치유를 위한 지독히 아름다운 저항의 주체(主體)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따뜻하면서도 예민한 감각을 소유한 인간 안창홍이 꿈꾸는 초록빛 세상

초록빛 눈물과 초록빛 아픔,
초록빛 절망과 초록빛 희망,
초록빛 사랑과 초록빛 이별,
초록빛 연민과 초록빛 회한,
초록빛 증오와 초록빛 용서.
모나고 찢긴 모든 갈등들이 한데 녹아드는 안식의 빛깔, 초록.

2007년 5월 26일 작업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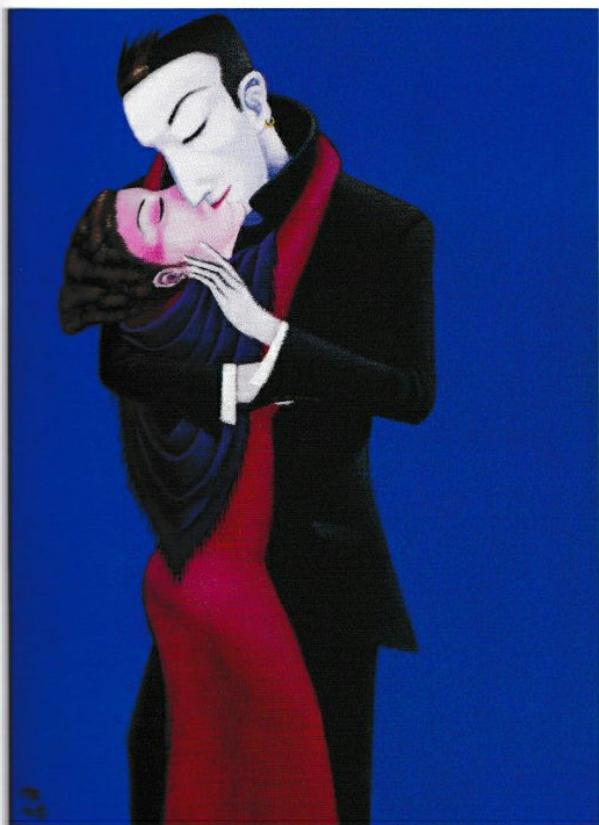
안창홍 작가는 경상남도 밀양 출생으로 대구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생활하다가 공무원이었던 부친의 근무지 이동으로 부산에서 부산대신중학교와 부산 동아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어렸을 때부터 남보다 유달리 그림에 재능을 타고난 그는 그가 기억하는 순간부터 붓을 잡고 있었다고 하니 화가는 그의 천직(天職)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천성적으로 규칙적인 생활과 제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그는 고교 시절 학업을 포기한다. 그러나 그의 재능을 일찍이 알아본 미술선생님이 1년 동안 그를 찾아다닌 덕분에 학교로 다시 돌아와 장학생으로 고교를 졸업한다. 대학 입시제도가 체질에 맞지 않았던 그는 대학입학 대신 작업 활동을 바로 시작하고, 자신의 작업실 월세 마련을 위해 몇 명의 취미생을 지도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 입시생도 들어오고, 대학 진학률이 좋아서 학생들이 많이 몰려오게 된다. 하지만 대학입시제도가 맞지 않아서 대학진학을 하지 않은 그에게 이러한 상황은 회의를 가져다주게 된다. 결국 그는 부산 생활을 정리하고, 1989년에 서울로 올라와서 화곡동에서 8개월 정도 생활하다가 경기도 양평 끝에 위치한 현재의 작업실로 들어와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곳에서 작업에만 몰두하고 있다. 한



박제호랑이와의 기념사진
(Snap Shot with a Stuffed Tiger)
Pencil on paper, 109.5×79.5cm · 1992

▶ **애만 사랑(One Love)** · Acrylic on canvas
53x73cm · 1994

▶ **입맞춤(Kiss)** · Acrylic on canvas
72x52cm · 1997



편, 그는 1983년 '현실과 발언' 동인에 합류하여 군부독재에 맞서 저항 미술 운동 활동을 하기도 했다. 결국, 그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안기부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게 되고, 그의 작업실 근처에 2년 동안 형사가 상주하고 있었다. 이처럼 항상 치열하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그는 5년 전에 폐암 수술을 받음으로써 또 다시 삶의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지만 삶에 대한 열정으로 이겨내고 현재는 완전히 회복되어 작업에 몰입하고 있다. 화실에서 만난 사모님 사이에 두 아들을 두고 있는 그는 그답게 어렸을 때부터 두 자제에게 의대와 법대 진학은 절대로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고 한다. 그 대신 예술 쪽으로 진로를 정할 것을 권유했다고 한다. 작업하는 부모님의 피를 자연스럽게 이어받은 큰 아들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네덜란드에서 석사 졸업 후, 레지던시 중인데 작품이 좋게 평가되어 전시회에서 작품이 6점이나 판매되는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한다. 작은 아들은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 공학과를 졸업하고 본인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항상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을 거부한 채 사회를 향한 끊임없는 애정 어린 관심과 독창적인 화풍으로 한국 미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의 다음 행보가 기대된다.

취재 · 글 김명숙 기자

절규(Scream) · Color pencil, drawing ink on paper
79,5x105cm · 1986

